

강진군 ‘물지마 골프장 유치’ 곤욕

조성사업 중단...4년만에 계약금 반환 요구, 토지수용 주민들 반발

강진군 신전면 일대에 골프장을 추진하던 민간 투자자 측이 사업을 포기한 뒤 토지수용자들에게 수천만~수억원의 계약금 반환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강진군과 금아산업(주)는 지난 2007년 4월 강진군과 신전면 별정리 일대 45만평 부지에 모두 730억 원을 들여 27홀 규모의 ‘해양 조망형’ 골프장과 골프텔을 짓기로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을 2008년까지 마무리하고, 2009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체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등 법적 절차가 늦어지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사업과 같

은 사기업 영리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10월 20일자로 사업추진 중단 이유를 강진군에 보내 왔다.

더욱이 업체는 토지매매 당시 계약서에 ‘인·허가 등의 사유로 골프장 조성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계약금 반환’을 명기해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33명의 토지소유자들에게 18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33%나 토지수용이 된 상황이다.

강진군은 골프장 민자유치 과정에서 직원들을 앞세워 토지매매를 강요하고, 계약서 작성을 대행하는 등 토

지매입을 주도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바람에 이미 돈을 써버린 주민들만 발을 구르고 있다.

주민들은 “강진군 투자유치팀 직원들이 나서서 2008년 12월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로 해 군이 직접 사업을 하는 줄 알고 땅을 팔았다”며 “사업 착수 4년여 동안 별다른 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미 써버린 돈을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투자양해각서 체결당시 황주홍 군수는 “금아산업(주)의 투자유치는 강진의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강진군에 투자하는 기업

은 강진의 공기업이라는 자세로 행정적인 지원 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금아산업 측이 현행 계약서대로 이행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에게 3번의 공문을 보냈고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지난 2005년부터 도암면 일대 50여 만평 부지에 27홀 골프장을 짓기로 (주) 삼공개발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매입을 앞장 서 대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으나 자금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다문화가정 전통음식 체험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와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20일 2층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전통음식 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장김치 담기를 비롯해 가래떡 썰기체험, 식혜 시식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나명주기자 mjna@

목포시의회 막말·삿대질 파문

‘통장 조례’ 개정 놓고...시 공무원 통장들에 시위 동원 문자 메시지

목포지역 통장들이 ‘연령·임기 제한’ 규정에 묶여 내년 1월 15일 대폭 교체될 위기(광주일보 11월 28일 10면)에 처한 가운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막말과 삿대질이 오가는 추태를 보였다. 또 목포시 공무원이 나서 통장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목포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의사전행 발언을 두고 의장과 의원들 간에 고성인 오가는 추태가 벌어졌다.

이날 발단은 민노당 여인두 의원이 본회의 개최직후 의사전행 발언을 신청한데 이어 백동규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또다시 의사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의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의장의 태도에 반발한 여의원에 허정민 부의장까지 가세하면서 10여 분간 삿대질과 고성인 오가는 불협화음의 모습이 연출됐다.

이와 함께 목포시 공무원이 통장들의 데모를 선동하는 문자 메시지를 관할 통장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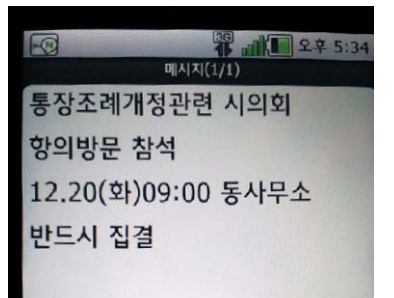
S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9일 오후 2시 11분 지난해 목포시의회에서 개정된 ‘목포시 통·반장 설치 조례’에 반대하는 통장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관할 통장들에게 발송했다.

발신 전화번호가 270-3605로 명시된 이 메시지는 ‘통장 조례 개정

관련 시의회 항의방문 참석 12월20일(화) 09:00 동사무소 반드시 집결’〈사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S동 관계자는 “나이 많은 통장들을 대신해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발송하게 됐다”면서 “발신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대로 전송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나이제한 상한선 폐지 ▲결원으로 보충된 통장 임기 2년 보장 ▲2006년 시행된 조례에 의해 임기 만료된 통장은 통장이 1회에



한해 재위촉 등 3개 항을 담은 일부 조례 개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새 얼굴

“불법조업 중단선 단호하게 대처”

강성희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 공권력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일 취임한 강성희(55) 목포 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은 국가안보와 우리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아주 중대한 업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화합단결 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과 함께 하고,

공감하는 봉사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출신인 강 서장은 지난 1981년 순경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목포해경 경무기획과장, 완도해경 해상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혜숙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구례 산동·용방면 일원

‘산수유 산업특구’ 지정

구례군이 ‘산수유 산업특구’로 지정돼 산수유 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은 “최근 지식경제부로부터 산동면과 용방면 일원(66만㎡)이 ‘산수유 산업특구’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특구지정의 이점을 살려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산업 위주로 재편하고, 산수유를 이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재배농가에 생산 이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동면 일원에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식품 연구개발, 관광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용방 농공단지에서 아이쿱(i-coup)생협에서 민자 40여원을 유치해 산수유 막걸리 공장을 건립, 2013년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산수유 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산수유 관련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산수유 산업을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전국 산수유 재배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봄철에는 노란꽃이 피 관광객들의 눈길을 이끌며, 가을철에는 약재로 사용되는 붉은 열매를 맺는다.

/중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광주지법 장흥지원 10번째 배심원 조정

8년 끌어온 분쟁 해결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미국식 배심제 재판을 실시한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이 지난 19일 10번째로 이웃간에 8년여 끌어온 분쟁소송 사건을 배심원들의 조정으로 이끌어 냈다.

이날 강진을 사무소에서 열린 배심제 재판은 9명의 배심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고 위모(73·강진군 작전면)씨와 피고 김모(74)씨 간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에 관한 분쟁 소송사건을 다뤘다.

이날 양측 주장을 경청한 9명의 배심원들은 “강진군청에서 경계 측량 등을 근거로 제시한 피고 김



씨가 점유한 46㎡ 땅은 분명 원고 위씨 소유가 인정된다”며 “현 땅 값 시세 139만원과 측량수수로 134만원 등 소요경비를 포함 총 333만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전국 법원에서 지난 2006년부터 배심제 재판을 최초로 실시한 이후 11번째 재판 가운데 10번을 배심원들의 조정으로 소송을 끝냈다.

/중부취재본부=김동기기자 kykim@

고용노동부 ‘노·사·민·정 협력 업무평가’

여수시 우수단체 선정 국무총리 표창

여수시가 고용노동부 주관의 ‘2011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업무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6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노사분쟁 없는 부분규의 해를 일궈냄으로써 얻어낸 값진 성과이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업무평가는 매년 전국 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구

성과 활성화 요소, 사업실적, 사업성과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현지 실사,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등의 심사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는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파업 등의 노사분쟁 없이 부분규의 해를 달성한 점과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 보전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2012년도 제20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2년 2월 20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월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2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1년 12월 1일(목) ~ 2012년 1월 13일(금)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2년 1월13일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E-mail : krimse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보육교사 자격 취득 !!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에 1,700,000원: 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전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직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 4주간제 한정입학(10월경)이 가능한 분야여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전복구이 전문점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인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문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 제초창

50m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일곡지구

코카콜라

해태 제과

SK주유소

금광 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